

● ● ●
Degree of Bachelor

제 2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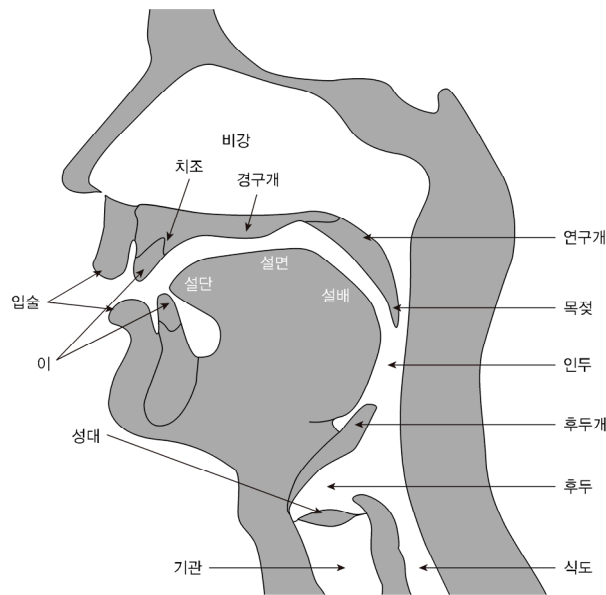
음운론





제2장

발음기관



〈그림2-1〉 발음기관

음성을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신체의 각 부위를 발음기관(發音器官, vocal organ 또는 organ of speech)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발음할 때 동원되는 부위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100개도 넘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음기관은 크게 호흡기관, 발성기관, 조음기관으로 나뉜다.

호흡기관은 말을 하는 데 필요한 숨을 폐에서 올라오게 하는 일을 한다. 발성기관은 후두(울대머리)에 있는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조음기관은 구강(입 안), 비강(코 안)을 중심으로 혀와 입술이 움직여 각종 음성이 분화되는 곳이다. 이 세 기관 중에서 말소리의 음가(音價)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조음기관이다.

제1절 성대



음성의 발원지인 허파로부터 숨이 나와서 기관(氣管, windpipe)을 지나 두 개의 성대(聲帶, vocal cord) 사이의 성문(聲門, glottis)으로 빠져나간다. 성대는 얇고 예민한 근육으로서 열리고 닫히면서 허파에서 나오는 숨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 이 얇은 막을 긴장시키고 그 사이로 공기를 밀어내어 진동을 일으키면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성대의 간격을 좁혀 성대를 빠르게 진동시키는 것이 성대가 음성과 관련하여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진동수에 따라 목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며, 진폭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리고 성대를 떨어 올려서 내는 소리를 유성음(有聲音, 울림소리, voiced)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소리를 무성음(無聲音, 안울림소리, voiceless)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성대의 작용에 따라 음성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대는 중요한 발음기관에 속한다. 한편, 이 성대를 중심으로 한 숨의 통로를 후두(喉頭, larynx)라고 한다.

제2절 목젢



숨은 성문을 거쳐 인두(咽頭, pharynx)로 나오게 되는데, 인두 바로 위에 목젢이 있다. 목젢은 숨을 입으로 통과시키느냐 코로 통과시키느냐를 조절하는 일을 한다. 목젢이 축 늘어져 있으면 숨은 코로 통과하며, 이것이 뒤로 밀려가 인두벽에 닿으면 코로 가는 통로가 막혀 숨은 입으로만 통과하게 된다.

목젢을 아래로 늘어뜨려 놓고 입 안의 어떤 곳을 막으면 숨은 코로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는 소리를 비음(鼻音, 콧소리, nasal)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목젢은 비음을 내는 중요한 발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구개



구개(口蓋)는 목젢에서 윗잇몸까지 쪽 이어지는 부분의 입천장이다. 입천장은 가운데 제일 높은 부분을 경계로 그 앞쪽은 딱딱하고 그 뒤쪽은 여리기 때문에 앞쪽은 경구개(硬口蓋, 셉입천장, hard palate)라 하고, 뒤쪽을 연구개(軟口蓋, 여린입천장, soft palate)라고 한다. 연구개는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콧길을 막게 되고 제자리를 돌아오면 콧길을 열 수 있다.

제 4 절 이와 잇몸



입천장의 맨 앞부분에는 잇몸이 있는데 이것을 흔히 치조(齒槽, alveolar ridge)라고 한다. 발음에 쓰이는 잇몸은 윗잇몸뿐이어서 치조라고 하면 아랫잇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잇몸 앞에 이가 있고 그리고 입술이 있다. 입술은 위와 아래가 다 쓰이지만, 발음에 쓰이는 이는 윗니뿐이다.

제 5 절 혀



발음기관 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혀이다. 혀는 각 부분이 발음에 매우 활발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맨 앞부분을 설첨(舌尖, point of tongue)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입을 다물었을 때 윗잇몸 부분과 맞닿는다. 경구개와 맞닿은 혀의 부분을 전설(前舌, front of tongue)이라고 하고 연구개와 맞닿은 부분을 후설(後舌, back of tongue)이라고 한다. 인두의 앞 벽을 이루는 혀뿌리, 즉 설근(舌根, root of tongue)은 인두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하지만, 대부분의 언어 가운데 말소리에서 이 부분이 발음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제 6 절 조음체와 조음점



음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동-발성-조음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혀파에서 음성에 필요한 기류를 만들고(기동), 기류가 성문을 통과하면서 성대의 진동을 일으킨 다음(발성), 성문을 통과한 소리를 입 안 어디에서 막거나 장애를 일으키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조음이라 한다.

조음체란 그러한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뜻하며, 입 안 아래쪽에 있는 아랫입술, 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음점이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조음체의 상대역만 하는 부위로서 입천장, 윗니, 윗잇몸, 윗입술 등이 있다.



제3장

음성의 분류

제1절

모음의 특징과 분류



모음은 공기가 입 안에서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고 성대를 울리며 나오는 소리다.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의 상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

혀의 높낮이는 구강의 상대적 개방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입을 좁게 벌리면 혀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높고 크게 벌리면 상대적으로 낮다. 입을 좁게 벌려 혀바닥과 입천장의 거리가 가장 가깝게 되어 발음되는 모음을 고모음(高母音)이라 하고, 그 거리가 가장 멀어진 상태에서 발음되는 것을 저모음(低母音)이라고 한다.

입의 벌림 정도, 즉 개구도(開口度, aperture)를 중시할 경우에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대신 ‘폐모음(閉母音), 반개모음(半開母音), 개모음(開母音)’이라는 용어를 쓴다.

혀와 입의 움직임에 따른 모음의 분류

구 분	특 징	예
고모음 (폐모음)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음 입은 가장 적게 벌어짐	ㅣ, ㅡ, ㅕ, ㅛ
중모음 (반개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임 입은 중간 정도 벌어짐	ㅔ, ㅖ, ㅗ, ㅜ
저모음 (개모음)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음 입은 가장 많이 벌어짐	ㅐ, ㅑ

2 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분류

발음할 때 혀가 작용하는 모양에 따라서 전설모음(前舌母音)과 후설모음(後舌母音)이 구분된다. 혀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발음되는 것을 전설모음, 혀가 뒤쪽으로 움츠리면서 발음되는 것을 후설모음이라고 한다. [ㅣ, ㅔ, ㅖ, ㅗ]는 전설모음에, [ㅓ, ㅕ]는 후설모음에 속한다.

3 입술의 모양에 따른 분류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하느냐 펴느냐에 따라 원순모음(圓脣母音)과 평순모음(平脣母音)이 구분된다. 입술을 둥글게 하여 발음하는 것을 원순모음이라 하며 [ㅜ, ㅠ, ㅡ, ㅟ]가 이에 속한다. 반대로 입술을 둥그랗게 하지 않고 발음하는 것을 평순모음이라 하며, [ㅣ, ㅓ] 등 원순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이 여기에 속한다.

제 2 절 자음의 특징과 분류



자음은 공기가 입 안에서 장애를 받아 흐름이 바뀌거나 막혀서 성도(聲道)의 한 부분을 수축할 때 나는 소리이다. 자음은 장애가 만들어지는 방법과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를 통해 분류할 수 있다.

1 조음위치에 따른 분류

(1) 양순음(兩脣音, 두입술소리, bilabial)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양순음이다. 양 입술이 서로 맞닿으면서 공기가 순간적으로 막힌 다음 양 입술이 터지며 공기가 입 밖으로 나가면서 조음된다. 국어의 양순음에는 [ㅂ, ㅍ, ㅃ, ㅁ]이 있다.

(2) 치조음(齒槽音, 잇몸소리, alveolar)

혀끝이 윗니 뒤의 잇몸에 닿거나 가까워지면서 나는 소리가 치조음이다. 혀끝은 조음에 관여하는 기관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보편적으로 치조음에 속하는 자음이 가장 많다. 국어의 치조음에는 [ㄷ, ㅌ, ㅊ, ㅅ, ㅆ, ㄴ, ㄹ]이 있다.

(3) 경구개음(硬口蓋音, 센입천장소리, palatal)

혀의 앞부분이 치조 뒤의 단단한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가 경구개음이다. 혀와 경구개 사이가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입의 방향으로 빠져나가면서 조음된다. 국어의 경구개음에는 [ㅈ, ㅊ, ㅍ]이 있다.

(4) 연구개음(軟口蓋音, 여린입천장소리, velar)

혀의 뒷부분이 경구개 뒤에 위치한 부드러운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가 연구개음이다. 국어의 연구개음에는 [ㄱ, ㅋ, ㆁ, ㅇ]이 있다.

(5) 후음(喉音, 목구멍소리, glottal)

혀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공기가 목구멍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가 후음으로서, 성문음(聲門音)이라고도 한다. 국어의 후음에는 [ㅎ]이 있다.

2 조음방식에 따른 자음의 분류

(1) 파열음(破裂音, 터짐소리, plosive)

공기가 혀파에서 입 밖으로 나오면서 발음기관의 어떤 부위에서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한다. 국어의 파열음에는 두 입술을 다물어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ㅂ, ㅃ, ㅁ], 혀를 윗잇몸에 대어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ㄷ, ㅌ, ㅎ], 혀를 연구개에 밀착시켜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ㄱ, ㅋ, ㆁ]이 있다.

파열음은 조음되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발음기관에 의해 공기가 막히는 단계로 폐쇄음이라고 하고, 둘째는 공기가 막힌 상태가 순간적이거나 지속되는 단계로 정지음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막힌 공기가 터지는 단계는 파열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뱀’과 ‘떡’처럼 끝소리 [ㅂ]과 [ㄱ]은 기류의 흐름이 막히기만 할 뿐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소리를 특별히 불파음(不破音, unrealised)이라고 한다.

(2) 마찰음(摩擦音, 갈이소리, fricative)

발음기관의 어느 지점의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나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한다. 국어의 자음에서 [ㅅ, ㅆ]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의 기류가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이며, [ㅎ]은 두 성대가 좁혀져서 그 사이를 나오는 기류가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다.

(3) 파찰음(破擦音, 터짐갈이소리, affricate)

발음기관의 어느 지점에서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려서 마찰을 일으키도록 하여 내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한다. 파열음과 마찰음의 특징을 모두 지닌 소리로서 국어의 [ㅈ, ㅉ, ㅊ]이 여기에 속한다.

(4) 비음(鼻音, 콧소리, nasal)

발음을 할 때 기류가 흘러나오는 통로인 입과 코를 각각 구강, 그리고 비강이라고 한다. 공기가 혀파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구강의 통로는 막히고 비강으로 공기가 나오면서 나는 소리가 비음이다. 국어의 비음에는 [ㅁ, ㄴ, ㅇ]이 있다.

(5) 유음(流音, 흐름소리, liquid)

공기가 입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며 발음기관의 장애나 폐쇄·마찰 없이 발음되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한다. 국어의 유음에는 [리]이 있으며 설측음과 설전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팔’처럼 혀를 입천장에 대고 혀의 옆쪽을 터놓고 기류를 통과하게 하여 내는 소리를 설측음(舌側音, 혀옆소리, lateral)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다리’처럼 설측음과 비슷하나 혀끝을 떨어 올려서 나는 소리를 설전음(舌顚音, 혀떨음소리, trill)이라고 한다.

(6) 경음과 격음

평음(예사소리), 격음(유기음, 거센소리), 경음(된소리)은 한국어에서만 존재하는 소리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격음은 평음에 비해서 성문 아래에서 공기를 많이 압축했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유기음이라고도 한다. [파, 타, 차, 카]를 발음할 때 입 가까이 손바닥이나 종이를 대어 보면 [바, 다, 자, 가]를 발음할 때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음은 후두를 긴장시켜 내는 소리로 [빠, 따, 짜, 까]를 발음해 보면 후두를 켜기게 만들어내는 소리를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 자음 분류표

발음 방법 \ 발음 부위			순 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 음
무성음	폐쇄음	평음	ㅂ	ㄷ		ㄱ	
		격음	ㅃ	ㄸ		ㄲ	
		경음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경음			ㅉ		
	마찰음	평음		ㄴ			
		격음					ㄹ
		경음		ㄴ			
유성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제4장

음 소

제 1 절 음소의 특성



1 음소의 정의

음소는 의미를 분화시키는 최소의 단위다. 예를 들어 ‘달’과 ‘팔’이 다른 것은 [ㄷ]과 [ㅍ]의 소리의 차이에서이다. 이와 같이 한 쌍의 대립적인 소리의 차이만으로 뜻이 달라지는 두 짝의 단어를 최소대립어(最小對立語, minimal pair)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의 짝을 만든 두 소리, 즉 변별적인 소리가 음소이다. 음소를 음성과 구별하기 위해서 음성은 [ㄱ], 음소는 /ㄱ/처럼 각각 [], / /로 표시한다.

2 변별과 대립

서로 다른 두 소리가 최소의 차이를 보이면서 의미를 분화시킬 수 있으면 그 두 소리의 관계를 변별적(辨別的, distinctive) 또는 대립적(對立的, contrastive)이라고 한다. 반대로 똑같은 음성적 환경에서 실현된 두 소리가 의미를 분화시키지 못할 때, 그 두 소리의 관계를 비변별적(非辨別的, non-distinctiv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물’과 ‘불’에서 [ㅁ]과 [ㅂ]은 최소의 차이로 의미를 분화시키는 힘이 있으므로 이 두 소리의 관계는 변별적이다. 그러나 ‘라면’의 [ㄹ]을 설측음(혀옆소리)인 [l]로 발음하든 설전음(혀떨음소리)인 [r]로 발음하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ㄹ]로만 인식한다. 따라서 이 두 소리의 관계는 비변별적이다. 즉 [l]과 [r]은 다른 음소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l]과 [r]은 [light]와 [right]에서처럼 변별적이어서 다른 음소로 인식된다.

두 소리의 관계가 변별적·대립적 관계를 보일 때 각각 다른 음소가 되듯이, 하나의 음소 자체 내에도 소리가 변하기도 한다. 한 음소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리 실현되는데 이를 변이음(變異音, allophon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음운 ‘ㄱ’은 그 분포 환경에 따라 [k], [g], [kʰ] 등의 음성으로 실현된다. ‘감기’[ka : mgi]와 ‘미각’[migakʰ]에서 음성 [g]는 유성음 사이에 분포하고 음성 [kʰ]은 음절 끝의 내파 환경에 분포하며 음성 [k]는 유성음 사이도 아니고 내파 환경도 아닌 환경에 분포한다. 이들 세 개의 음성은 분포 환경이 고정되어 있어서 서로 넘나들며 분포할 수 없다. 이처럼 각 음성은 서로 다른 음성 환경에 분포하지 못하는 성질을 상보적 분포(相補的

分布, complementary distribution) 또는 배타적 분포(排他的 分布, exclusive distribution)라고 한다.

3 운 소

자음과 모음은 모두 더는 작게 쪼갤 수 없는 소리의 낱덩이, 즉 음성이지만 여러 가지 특질로 말의 뜻이 분화되기도 한다. 하나의 음성은 여러 가지의 특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음성자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눈’의 [ㄴ:]는 고모음이라는 것, 후설모음이라는 것, 원순모음이라는 것, 길게 낸다는 것 등의 음성자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음성자질 가운데에는, 그 하나를 바꾸면 [ㄴ:] 아닌 다른 모음으로 바꾸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ㄴ:]에서 혀를 앞으로 옮기면 [ㄷ:]가 되어 다른 모음이 된다. 그러나 [ㄴ:]의 길이를 바꾸어 짧게 하면, 말의 뜻은 달라지지만(사람의 눈, 目), 이들 모음은 다른 소리가 되지 않는다. 길이(음장)와 마찬가지로 악센트, 억양, 연접도 음성자질은 바꾸지 않으면서 말의 뜻을 분화시키는 데 관여한다.

이와 같이, 다른 음성에 얹혀서 그 음성은 바꾸지 않고 말의 뜻만을 달라지게 하는 음소를 운소(韻素, prosodeme)라고 한다. 그리고 운율적(韻律的) 자질로 이루어진 이들은 자음이나 모음처럼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분절음소(超分節音素)라고도 한다.

제 2 절 국어의 음소체계



1 모음체계

모음체계를 파악할 때도 계열과 서열로써 하게 된다. 계열은 혀의 전후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나누며, 서열은 혀의 높낮이, 다시 말하면 개구도(開口度)로 한다. 현대국어의 단모음체계(單母音體系)를 보면 [ㄱ, ㄴ]를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4계열 3서열의 체계가 된다.

모음체계(21개)

• 단모음(10개)

계열→ 서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모 음	ㅣ	ㄱ	ㅡ	ㅈ
중 모 음	ㅓ	ㅗ	ㅜ	ㅛ
저 모 음	ㅕ		ㅟ	

국어에는 10개의 단모음 외에 2개의 반모음 /w/와 /j/가 있는데, 이들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11개의 이중모음(二重母音)을 형성한다.

• 이중모음(11개)

‘ㅣ’ j(y)계	웨 웨 꺄 헤 헤 꼬
‘ㅛ/ㅠ’ w계	웨 웨 새 나
‘ㅡ’ tt계	너

2 자음체계

국어의 자음체계는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이 평음, 경음, 격음으로 변별되는 매우 질서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상관적 대립관계에 따라 [ㄱ-ㅋ-ㆁ], [ㄷ-ㅌ-ㄴ], [ㅂ-ㅍ-ㅃ], [ㅈ-ㅊ-ㅉ]처럼 묶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묶음을 상관속(相關束)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파열음과 파찰음의 상관속은 세 음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삼지적(三肢的) 상관속이라 하고, 마찰음인 [ㅅ-ㅆ]은 이지적(二肢的) 상관속을 갖는다.

음소들이 발음방식이 같고 발음위치에서 대립적이면 계열이라고 하고, 발음위치가 같고 발음방식이 대립적이면 서열이라고 한다. 국어의 자음체계는 다음과 같은데, 하나뿐인 설측음 ‘ㄹ’과 성문음 ‘ㅎ’을 제외하면 4계열 4서열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발음방식과 발음위치에 따른 국어의 자음체계

계열→\서열↓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평음	ㅂ	ㄷ, ㅌ	ㄱ	ㄴ	ㅎ
경음	ㅃ	ㄸ, ㅊ	ㅋ	ㆁ	
격음	ㅍ	ㅌ	ㅊ	ㅋ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3 운소체계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음소로 말소리를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지만, 음소를 길게 늘여서 말할 수도 있고, 음성의 높이를 바꿀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음절을 더 세게, 높게 또는 길게 발음해서 의미에 차이를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운율적 자질로서 장단, 고저, 강세, 억양을 음소와 구별하여 운소라고 하며 초분절음소(suprasegmental phonem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모음과 자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음소, 즉 분절음소(segmental phoneme)와는 달리 분절할 수 없는 음률적 특질인 음소라는 의미이다.

08 다음 중 국어의 ㅈ계 이중모음은 어느 것인가?

- (1) (2)
- (3) (4)

해설 11개의 국어의 이중모음은 10개의 단모음과 2개의 반모음 /w/와 /j/가 결합하여 형성되며 j계 이중모음 [ㅟ, ㅠ, 넌, 넌, 넌], w계 이중모음 [ㅜ, ㅡ, ㅛ, ㅜ], n계 이중모음 [ㅡ]로 나뉜다.

09 국어의 자음체계가 평음, 격음, 경음으로 변별되는 질서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ㄱ-ㅋ-ㆁ], [ㄷ-ㅌ-ㄴ] 등으로 묶인 것을 뭐라고 하는가?

- ① 상관속 ② 상관표지
③ 계열 ④ 서열

해설 국어의 자음체계는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이 평음, 경음, 격음으로 변별되는 매우 질서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상관적 대립 관계에 따라 [ㄱ-ㅋ-ㆁ], [ㄷ-ㅌ-ㄴ], [ㅂ-ㅍ-ㅁ], [ㅈ-ㅊ-ㅅ]처럼 묶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묶음을 상관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파열음과 파찰음의 상관속은 세 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삼지적 상관속이라 하고, 마찰음인 [ㅅ-ㅆ]은 이지적 상관속을 갖는다.

- ② 상관표지는 동일 범주의 음운에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변별자질을 일컫는다.
- ③ 계열은 자음에서는 조음위치에 따른 대립에 따른 것이고, 모음에서는 혀의 전후위치와 입술모양에 따른 것이다.
- ④ 서열은 자음에서는 조음방식에 따른 대립에 따른 것이고 모음에서는 혀의 높낮이, 즉 개구도에 따른 것이다.

1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물’과 ‘불’에서 [ㅁ]과 [ㅂ]은 최소의 차이로 의미를 분화시키는 힘이 있다.
- ② 한국어에서 [l]과 [r]은 변별적이어서 다른 음소로 인식된다.
- ③ 대체적으로 성조가 있는 방언에는 음장이 없고, 음장이 있는 방언에는 성조가 없다.
- ④ 음운 ‘ㄱ’은 그 분포환경에 따라 [k], [g], [kʰ] 등의 음성으로 실현된다.

해설 '라면'의 [리]를 설측음(혀엮소리)인 [l]로 발음하든 설전음(혀뺨음소리)인 [r]로 발음하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리]로만 인식한다. 따라서 이 두 소리의 관계는 비변별적이다. 즉 [l]과 [r]은 다른 음소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l]과 [r]은 [light]와 [right]에서처럼 변별적이어서 다른 음소로 인식된다.